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Research on Establishing Effective Multicultural Churches
and Evangeliz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하도균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초 록(Abstract)

필자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다문화 교회로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려 한다. 앞으로 다문화 교회는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래적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전도가 가능한지를 연구하여 교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다문화교회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호주 연합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한 요소들을 한국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접목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교회에 몇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첫째, 순례자나 여행자의 공동체로써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다문화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상황 속에서 건강한 다문화교회로 뿌리를 내리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제시된 가치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는 일이다. 셋째, 그러나 한국적 다문화 사회는 한국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상황이 있기에 한국 교회는 이것을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과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다문화교회로 정착을 위해서는 교회의 건강함이

기초되어야 하고, 그 건강함의 외적인 상징은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있음을 한국 교회는 알아야 한다.

The researcher is trying to study how the current church can establish a multicultural church properly in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a multicultural church will shortly become the most serious issue among the Korean churches. Furthermore, the researcher studies how evangelism can be efficiently feasible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support the Korean church to be changed toward a multicultural church effectually. It is an endeavor to be faithful for the original identity of the church among the nations. For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examines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which was established successfully in Australia as a multicultural church, and the writer finds the essential elements for a multicultural churc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to help the Korean church to build Korean multicultural church properly.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convey some meaningful messages for the Korean church. Firstly, an identity of the church as community of pilgrims and travelers make a sense that the church has an inseparable relation with a multicultural society. Secondly, the ministry of the church to build a healthy multicultural church in a multicultural society is not a new one, but is encouraging to practice the values what the Bible already proposed. Thirdly, the Korean church needs to figure out unique features and circumstances of Korean society in order to have proper policies and measures for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Korean society has own unique features and circumstances in comparison with other societies. Lastly, the Korean church needs to understand that efficient evangelism is an external sign of the church health, and the health should be the fundamental foundation in order to build a multicultural church effectually.

주제어: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 효율적 복음전도, 한국적 다문화, 호주연합교회

Key Word: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Churches, effective evangelization, korean multicultural,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1. 들어가는 말

요즘 한국사회와 교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담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다문화’ 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시간동안 한 혈통 아래 고유의 문화를 자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외국 이주민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 등 다인종, 다국적인 사람들과 한 땅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점차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6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인 1,698,983명으로 2013년의 1,445,103명에 비하여 약 1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수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0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고유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한국 국민이 경험하게 된 사회의 변화와 문화의 변동,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고수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화를 외치며 세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과제 앞에서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의 현상은 필연적으로 극복하고 잘 정착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바른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까지는 아직까지 멀어 보인다. 정부가 다문화 사회를 위해 내 놓은 대책들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이민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² 그나마 내 놓은 정책들도 지나치게 경제적

인 이익이나 효과에만 치중하거나, 당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해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³ 국민들 역시 아직은 다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문화충돌과 배타의식에서 도출되는 차별 등을 표현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필자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다문화 교회로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려 한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래적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전도가 가능한지를 연구하여 교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변화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원래 교회는 처음부터 열방을 품고 열방 속에 존재하는 다문화적 교회이기에 그 본질적 사역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밝힌다. 이를 위하여 이미 다문화교회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호주 연합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한 요소들을 한국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접목하려고 노력하였다.

2.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징

2.1.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다문화’와 ‘다문화주의’라는 핵심 단어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단어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존 사회의 구성원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먼저 출현한 사상적 단어들이기 때문이다.⁴

논문 (2012년 7월 23일).

¹ 김도진 외, *다문화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4), 43; 임희모,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다중적 다문화선교사 리더십”, 제6차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자료집 (2014), 13을 참조하라.

² 설동욱,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 과제”, 국회헌정 기념관 대강당에서 발표된

³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6집 3호 (2006년 6월), 67-93을 참조하라.

⁴ 박홍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대학과 선교* 6집 (2009), 49.

‘다문화’ 라는 단어는 너무 유동적이어서 사람들, 학파, 분야에 따라 그 의미가 차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경험되고 습득되어 떼어 놓을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적 모습’⁵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익숙했던 하나의 문화 속에 낯선 다른 문화들이 들어가 합쳐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적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 라는 단어는 그 안에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다문화’ 라는 단어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전통과 관습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갈등이나 위기를 봉합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인 담겨있다.

‘다문화주의’ 는 ‘다문화’ 에 사상, 이념, 철학이 가미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 는 문화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또는 운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단어 라고 할 수 있다.⁶ 쉽게 말해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사회를 견인해 가는 지배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이 단어는 캐나다가 다원주의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용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북아메리카와 호주, 그리고 유럽에서도 사용되었다.⁷

이렇게 본다면, ‘다문화’ 는 여러 문화가 섞여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개별적 현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다문화주의’ 는 한 단체나 국가가 그 현상을 조화롭게 끌여가기 위한 사상과 이념, 철학이 첨가된 이데올로기, 혹은 정책 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는 ‘다

문화’ 라는 현상에 단체나 국가적인 이념과 사상이 첨가된 ‘다문화주의’ 가 바탕이 되어 나타난 사회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문화’ 와 ‘다문화주의’ 의 조화로운 융합이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는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2.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징들

한 나라가 다문화 현상 속에서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로 정착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를 분석한 해롤드 트로퍼(Harold Troper, 1942-)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다.

첫째,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둘째,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회적인 이념과 가치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⁸

이상의 기준들을 한국사회에 적용해 보자면, 한국사회는 아직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빈약해 보인다. 이제 막 다문화적 인구의 현상이 증가하고는 있지만,⁹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다문화

⁵ 장훈태, *선교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1), 88-89.

⁶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67-93을 참조하라.

⁷ 김범수 외, *다문화 사회복지론* (경자: 양서원 2007), 67.

⁸ Harold Troper, “Multiculturalism.” In Paul Robert Magocsci (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99), 997-1006을 참조하라.

⁹ 한국은 2007년을 기준으로 외국 이주민이 국민 전체의 2%를 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5%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민자들이 건국하여 건국 때부터 다문화를 표방하며 나라를 시작한 캐나다나, 2차 대전 후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선언하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다문화 국가가 된 호주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한국도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육동일 “다문화 끼인아야 선진국된다”, opening 열린가

사회에 관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과 사회프로그램도 갖추어진 것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이 처한 다문화 사회의 대략적인 현실이다.

이쯤에서,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한국은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게 된 이유가 곧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게 된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 때문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자본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의 송출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게 되었다. 둘째,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의 급증 때문이다. 그 이유는 농촌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을 만나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¹⁰ 또한 통일교의 합동 결혼을 통해서 유입된 외국인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유학생들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IT분야나 신학 분야에서 공부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생들도 급증하는 경향이다. 넷째, 2세대의 다문화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이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간이 20년이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2세대 다문화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상의 요인들이 단일문화를 고수하며 달려온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징들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순응이 잘 되지 못한 결과, 단일민족과 순수 혈통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둘째, 필요에 의한 이주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자들의 숫자

가 한국적 다문화 사회에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구체적인 이민정책의 부재 속에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이다.¹¹ 넷째, 한국의 가부장적인 구조의 성격이 이주민들을 존중하고 통합을 이루려하기보다, 한국에 적응하고 융화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이다. 그렇기에 한국적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과 이론을 전개해 갈 때에는 해외의 사례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반드시 한국적 다문화 사회에 대한 특징들이 고려해야 한다.

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의 독특한 역사와 동양적인 사고의 토대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서구적 세계관이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동양적인 세계관은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질서와 가족을 강조하는 온정주의(paternalism)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²

2.3. 한국적 다문화 사회에 대한 주류 사회와 교회의 대응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의식과 정부의 대책은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듯 보인다. 또한 주류 사회는 다문화를 포용하고 적응해 가려고 하기보다는,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한국적인 것을 강요하고 한국적인 문화에 녹아들 것을 주문한다. 실제로 신진호 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변방으로 내몰리는 이방인들.. 한국말 배워야 적응 빠르다며 다그쳐. 한국의 이주민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 탓에 시달리고 사회적 위치도 낮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당, 중앙일보 (2008년 4월 25일자).

¹⁰ 국제결혼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 35.9%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06년 통계청 자료를 참조했다.

¹¹ 정미경 “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의 이주민선교”, 복음과 선교(서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1), 21을 참조하라.

¹² Will Kymlicka & Baogang He ed., *Multiculturalism in Asia*, (New York: Oxford, 2005), 6.

없는 탓이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들의 언어나 문화 등에 거의 관심이 없다.¹³

이상의 기사는 한국의 주류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내어놓아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고 다문화를 수용해가기 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풀어야 할 과제들에 한해서 그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으로만 집중해 있어서 균형 있는 다문화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¹⁴ 또한 이주민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는 배제되어 비판을 사고 있다.¹⁵

이러한 비슷한 대응은 교회 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주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크게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이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여 회심하려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든지, 그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반면,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투쟁하며 노력을 하였지만, 그들을 향한 선교적 혹은 신학적인 접근이 충분치 않았다. 그리고 양쪽 진영 모두,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만을 강조하고 실천하여 이주민들을 마치 한국인들인 것처럼 살게 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¹⁶

또한 한국 교회의 이주민들의 언어에 대한 배려 역시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가 이주민들의 언어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상대방에 관한 이해는 언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교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중 언어 자를 양성하는 등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¹⁷

3. 다문화 사회에 관한 성경적 고찰과 교회의 책임

3.1. 다문화 사회에 관한 성경적 고찰

다문화 사회는 특별히 기독교와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주민으로 취급을 하시며, 본향을 향해가는 순례자들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문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미 다문화화적인 배경 아래서 서술되었고,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침과 기준들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원하신다.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나그네’, ‘객’ 이라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흠뻑 열방 가운데 보내시고 그 흠뻑된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흠뻑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 단어 안에서 성경의 핵심이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13 신진호, *세계일보* (2011년 3월 8일자).

14 이현정, “한국의 다문화 모델을 위한 공감론적 접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2014), 129.

15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32-34.

16 손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종교의 역할”, *복음과선교* (서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4), 225.

17 Peter McLaren, *Critical Pedagogy and Predatory Culture: Oppositional Politics in Post Modern Era* (Routledge, 1995), 132를 참조하라.

18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19 Elizabeth Conde-Frazier, S. Steve Kang and Gary A. Parrett, *A Many Colored Kingdom* (Grand Rapids, MI: Baker, 2004), 57.

그렇다면 ‘나그네’는 구약성경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는가? 히브리어로 ‘게르’(גֵּר)라는 단어가 주로 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자신들의 출신 사회를 떠나 다른 부족, 도시 혹은 나라로 간 사람들로써 사회적 인 보호나 특혜를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지배권 하에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²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히브리’라는 단어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²¹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게르’ 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구약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요한 지침을 주셨다. 즉 이스라엘 본토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절기는 지키는데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며(출 12:49),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 세상에 안주 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주민들과 서로 다른 언어와 전통, 관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나마 이주민들과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성경의 지침 때문이었다.²²

신약성경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단어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이겨내도록 격려할 때 사용되었다. 또한 신약성경은 복음이 어떻게 헬라세계에 영향을 끼치어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서술함으로 오늘날 다문화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생소한 새로운 역사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복음서가 다문화적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마태복음은 시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입

장에서,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팔레스틴의 농부의 관점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엘리트 중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한 사람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소외된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영한다.²³ 복음서는 이미 다문화 사회의 사람들에 관한 배려로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적인 신약성경의 관점은 다음의 구절에서 절정에 이른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라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다문화 사회를 접근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고찰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는 교회의 철학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문화 사회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뜻과 미션을 발견하여 펼쳐 나가야 할 사회임을 살펴본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적인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동등한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적 인간관의 철학을 다져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단체보다도 다문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저 동정심이나 공휴만으로 이주민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인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²⁴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신앙적 철학을 확고히

²⁰ Christiana Van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니* (경가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22.

²¹ 최경순, “다문화 선교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과정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17.

²² 박홍순, “우리시대의 이주민을 위한 성경해석”, *목회와 신학* 통권 224 호 (2008년 2월), 98-99.

²³ 천사무엘, “다문화 사회 기독교 학교의 성서교육”, *신학논단* 65집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259를 참조하라.

²⁴ 여기에 대해서는, 히도균 *십자가* (경가 예수전도단 2015), 14-18을 참조하라.

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회가 먼저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느껴질 때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도움의 의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라는 현상이 선교의 장’이라는 신앙적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품고 가는 교회가 아니다. 그 지역을 출발점으로 지경을 넓혀 점차 열방을 품고 나가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는 사랑의 실천의 장’이라는 철학도 가져야 한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신 26:12)고 하셨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앞에 펼쳐진 다문화의 장에서 먼저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가 ‘사회통합과 갈등의 완충역할을 선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사랑이 부족해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부족해서도, 사회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감당해야 할 주님의 거룩한 명령도 있기에, 스스로에 대해 다문화 사회를 주도할 주체라는 입장을 지녀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3.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정립한 신앙적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이민자들에게 민족적인 동질성에 바탕을 둔 보호처의 역할과 휴식처로서 작용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인정 및 승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제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교육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교회는 기독교적인 신앙관에 입각하여 다문화교육을 주도해야 한다. 실제로 다문화 사회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 그리고 실천 이론들은 다문화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교육은 자국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행해져야 한다. 또한 교육의 중심 내용은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관점에 관한 내용이다.²⁶ 이러한 교육이 교회에서 더 적절한 이유는 교회는 이미 기독교교육에 관한 골격이 갖추어져 있고 그 안에 다문화에 관한 성경적인 지침과 내용들만 담을 수 있으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교회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돌봄과 환대의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교회가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환영을 연습하는 일이며,²⁷ 그렇기에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교회가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²⁸ 러셀(Letty M. Russell, 1929-2007)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환대의 사역을 실천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였다.²⁹ 특히 러셀은 환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타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25 Charles Hirschma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 No 3 (2004), 1-19.

26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and Sociological Theory,” Roland Robertson and Kathleen E. White,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1 (London: Routledge, 2003), 295-299를 참조하라.

27 Letty M. Ruessell, “Encountering the ‘other’ in the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99. No.4 (2006, 10), 467.

28 Seforosa Carroll, “Strangers and Frangipani Lei: Exploring a Christology of Hospitality,” *Faith in a Hyphen: Cross-Cultural Theology* (Sydney: UTC Publications, 2004), 155.

29 Letty M. Ruessell, *Just Hospitalit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5.

창조된 사람들로서 아무도 타자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³⁰

신앙교제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교회는 다문화권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삶의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넬슨(C. Ellis Nelson, 1907-2011)은 기독교 공동체가 삶을 함께(Life together) 나누는 독특한 공동체라고 하였다.³¹ 그런데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치 자신의 일들처럼 생각해주고 분담하여 함께 처리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교회가 삶을 나누는 신앙적 교제의 모습을 이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 안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교회는 다문화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구성원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회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잘 정착하고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다고 하여도, 마지막은 그 노력의 결과로 구성원 모두가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공적인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행위가 증인된 삶으로서 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³² 파올리는 신앙의 단계에 따른 순례의 여정을 제시하며, 신앙의 마지막은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분명한 기독교의 정체성과 공적 소명에 헌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하였다.³³

³⁰ Letty M. Ruessell, "Encountering the 'other' in the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458.

³¹ C. Ellis Nelson, *How Faith Matur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155.

³² Darrell L. Guder, "Toward a Holistic Theology of Mission: World, Community, Neighbour," *선교와 신학* 15집(2005), 171-173을 참조하라.

³³ James Fowler, *Weaving the New Creation*, 박수봉 역,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 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00-208을 참조하라. 또한 James Fowler, *Life Maps: Conversations on the Journey of faith*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5)를 참조하라.

4. 성공적인 다문화교회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

4.1. 성공적인 다문화교회 정착 사례로서 호주연합교회

세계 속에 모범적인 다문화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여럿 있지만, 필자는 특별히 호주연합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다문화교회의 정착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려 한다. 그 이유는 필자가 호주연합교회의 신학교인 UTC(United Theological collage)에서 교환 교수(Visiting Scholar)로 1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민제한법이 단계적으로 무너져가다가 1973년 휘틀담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백호주의가 폐기되고 '다문화정책'이 시작되었다. "다문화 사회로서의 호주(Australia as a Multicultural Society)"라는 주브리키(Zubrzychi)의 보고서가 호주 소수민족위원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 정책이란 여러 인종과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을 의미한다.³⁴ 호주정부가 다문화정책을 내 놓으며 이민자들을 대폭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국가 안보와 경제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호주의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호주연합교회는 탄생하였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통합의 과정을 거친 후, 1977년에 호주감리교회와 호주장로교회, 그리고 호주회중교회가 연합하여 호주연합교회를 출범함으로써 호주에서는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탄생한 것이다. 호주연합교회는 'Unit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Uni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계속되는 연합의 노력과 보다 넓은 일치를 추구함"³⁵이 목적임을 천명하였다.

주요한 개신교단과의 연합을 이룬 호주연합교회는 1985년 4차 전국총회를 통하여 호주연합교회가 다문화교회라는 선언과 함께 실천방안을 총

³⁴ 양명득,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회*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2009), 71.

³⁵ "1. The Way into Union" in the of "Basis of Union," (1992).

회에서 통과시켰다. 드디어 호주연합교회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교회로서의 성공적인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호주연합교회가 많은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선교의 산물이자 도구임을 보여주며 여러 이유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교회를 만들기 위한 호주연합교회의 실천은 추상적인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정을 가하며 더 깊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호주에서 다문화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교단적으로 선언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신학교는 호주연합교회와 호주연합신학대학이 유일하다. 호주연합신학대학은 이 부분에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신입생들은 다문화 오리엔테이션 주강을 필수적으로 참석해서 다문화를 체험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한다.³⁶ 그렇기에 호주연합교회의 다문화교회를 위한 노력은 국가가 추구하는 다문화정책과 어우러져 다문화 사회를 정착하는데 일조하였다.

4.2. 다문화교회 정착을 위한 호주연합교회의 중요 원칙들

호주연합교회는 다문화교회로 정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가? 먼저, 호주연합교회는 다문화교회를 호주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호주의 원주민(aborigine)과 이민자(ethnic)들의 여성과 남성이 교회 결정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³⁷ 이러한 제안은 획기적인 것으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기성성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의 도움과 관심 없이는 교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총회나 주총회 시, 이민자

대표들이 총대로 자동 선출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호주연합교회는 원주민들과 이주민 성도들이 연합교회의 재산과 재정을 사용하는 동등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과 관점을 교회의 안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³⁸ 실제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재정, 곧 물질에 관한 부분들이다. 그런데 호주연합교회는 연합교회의 재산과 재정을 원주민들과 이주민 교인들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 예로서, 1992년 총회에서 ‘다문화교회의 교회건물 사용 정책(Property Policy in a Multicultural Church)’을 보면, “우리의 모든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공평하고 파트너적인 방법으로 서로 나누어야 한다”³⁹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호주연합교회는 이민자들이 편한 언어로 예배하게 하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며 목회적인 도움을 제공한다.⁴⁰ 실제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이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없다면 다문화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호주연합교회는 이중 언어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하며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 실천의 차원으로 총회나 주총회 주요 예배 때에는 영어 이외의 언어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연합교회는 이민자 안에 많은 다양성이 있음을 존중하여 그들의 교회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총회는 이주민 자들이 이주민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맞는 예배당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⁴¹ 이는 진정으로 다문화속에 있는 차이를

³⁶ 양명득,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회*, 81.

³⁷ “5. Appendix I- The Uniting Church is a Multicultural Church,” *The Report of General Assembly* (1985. 7), 180.

³⁸ Ibid.

³⁹ “Conclusion. - Property Policy in a Multicultural Church,” *The Report of General Assembly*, (1992. 9).

⁴⁰ “6. Appendix I- The Uniting Church is a Multicultural Church,” *The Report of 7th. General Assembly*, (1985), 180.

⁴¹ “7. 9. Appendix I- The Uniting Church is a Multicultural Church,” *The Report of*

인정하는 것이며 이민자들로 하여금 호주라는 땅에서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교회들의 연합으로서 다문화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기도 하다.

호주연합교회는 다문화교회와 이민자교회의 목회를 위하여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돕는다.⁴² 이를 위하여 교단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호주연합교회의 전통과 신학, 그리고 호주에 적합한 신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역으로, 연합신학대학교에서는 앞으로 호주연합교회의 목사가 될 모든 후보생들에게 다문화 오리엔테이션 주강을 필수적으로 참석케 하여 교육하며 학기 중에도 타 문화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여 이주민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3. 한국적 상황으로의 적용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 한국사회를 호주와 비교하여 호주처럼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고, 또 과정을 밟아 가고 있는 한국과 시행착오를 거쳐 다문화를 뿌리내리고 있는 호주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먼저 그 길을 달려간 호주연합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첫째, 현재 한국교회의 다문화 논의와 실천은 다분히 개교회 중심이다. 특별히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실천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는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사회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개 교회 위주의 다문화정착을 위한 실천보

다는 교단차원의 다문화정책과 실천방안이 제시되어 나와야 한다. 그때,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현상을 주도하여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이상적인 다문화교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이주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소수를 배려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호주연합교회처럼, 이주민 소수자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교회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 예로,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이주민 소수자들을 배려할 수 있고,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들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채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셋째, 호주연합교회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건물을 사용하는 문제에도 이주민 성도들을 대표로 참석시켜 동등한 입장에서 재산권을 집행하지만, 아직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자국민 신앙커뮤니티를 구성해 주는 일이다. 이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예배 시간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창출해 낼 수 있다.

넷째, 다문화 이주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어의 문제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하는 일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주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다문화교회를 형성하여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세계의 공용어나 한국에 많이 분포해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언어만이라도 준비하여 이중 언어, 혹은 다중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교회는 다문화 속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이중 언어 자를 양성하며 내부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⁴³

다섯째, 한국사회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행이 더 빠를 것을 예상한

7th. General Assembly, (1985), 180-181.

42 "8. Appendix I- The Uniting Church is a Multicultural Church," *The Report of 7th. General Assembly*, (1985), 180.

43 Peter McLaren, *Critical Pedagogy and Predatory Culture: Oppositional Politics in Post Modern Era*, 132.

다면, 교회도 미래를 바라보며 신학대학교에서 본격적인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신학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여 가르쳐야 한다.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신학교의 교육은 미래 교회교육의 기본적인 이론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5.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복음전도 전략

5.1.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재정립

다문화 속에서 교회가 효율적으로 복음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 필자는 목회자의 올바른 목회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목회 방향은 목회자의 목회철학에서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상황에 맞는 목회자의 목회철학, 그리고 복음전도에 관한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재정립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펼쳐나가는 다문화교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상황에서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위해 목회자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목회철학을 재정립하여야 하는가? 먼저는 성경은 항상 다문화적 배경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복음화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 지는 상황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목회철학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목회철학이 재정립될 수 있다면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 질 수 있다.

또한 목회자가 복음전도에 관한 성경적으로 올바른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음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에만 목회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복음전도 역

시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복음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⁴⁴ 여기에 대해 목회자가 분명한 목회철학이 있어야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실천 역시 힘을 얻을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목회철학이 필요하다.

5.2. 본질적 차원에서의 접근 - 생명력 있는 교회 만들기

다문화 사회 속에서 복음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목회철학이 목회자에게 정립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복음전도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필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공동체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마다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고 나온 슬로건(Slogan)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정경화 된 성경도 없었으며, 체계화된 성경도 없었지만, 기독교의 핵심인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있었다. 그렇기에 그 생명의 힘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복음전도의 열매를 탁월하게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가질 수 있었는가?

첫째, 초대교회 안에서는 수직적인 ‘Koinonia’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Koinonia’이다. 교회가 이것을 잃으면 형식만 남게 된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교회를 대항하여 내건 교회 개혁의 구호가운데 ‘Communio

⁴⁴ 히도균, “복음전도의 정의”, *전도바이블*(경가 예수전도단, 2014), 1장 18-47을 참조하라

Sanctorum' 이 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Communion of the Saint)' 라는 말인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며 사용한 용어였다.⁴⁵ 그런데 여기서 'Communion' 은 헬라어 'Koinonia' 에서 나온 말이며, 이 말은 영어의 'Community' 의 어원이 되었다.⁴⁶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Koinonia' 를 잃어버려 유기적인 공동체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Koinonia' 가 살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직적인 'Koinonia' 가 활발하였다. 수직적인 'Koinonia' 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신앙의 모든 힘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형식화 되어질 수 있다

둘째, 초대교회는 수평적인 'Koinonia' 가 활발하였다. 이것은 수직적 'Koinonia' 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수평적인 'Koinonia' 는 교회 안의 같은 멤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유무상통' 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Koinonia' 의 모습이였다. 실제로 베푸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지만⁴⁷ 무조건 베풀라고 요청만 해서 되어 지지는 않는다.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 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수직적 'Koinonia' 가 가능하였기에, 그 힘의 능력으로 수평적인 사랑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며 교회의 생명력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수직적인 'Koinonia' 를 통한 회복과 수평적인 'Koinonia' 를 통한 사랑의 나눔으로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만든 초대교회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Koinonia' 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갔다. 이 부분이 바로 세상을 향한 복음전도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그리스도인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진정한 'Koinonia' 를 통한 교회의 생명력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도 복음전도를 위한 강력한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5.3. 방법적 차원에서의 접근 - 피전도자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위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다문화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 관한 연구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수용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⁴⁸ 첫째는 복음에 수용적인 부류이다. 이들은 '삶의 한계' 를 경험한 사람들로써 전도자가 체계적인 복음제시만 할 수 있다면 전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⁴⁹

둘째, 무관심한 부류가 있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지만 수용적인 부류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⁵⁰ 라이너(Tom S. Rainer, 1955-)는 미국의 경우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이 36%로 비신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⁵¹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관심한 부류가 50.4%로 가장 높았다.⁵² 헌터(George G. Hunter, 1942-)의 류(Agnes Liu)의 '삼각스케일(Triangle Scale)' 을 보면 이들을 위한 복

48 히도균, "복음전도를 위한 피전도자의 이해", *전도바이블* 11장을 참조하라.

49 Ibid., 250-256을 참조하라

50 히도균, "세속화시대의 복음전도", *전도바이블* 304-306을 참조하라

51 Tom S. Rainer, *The Unchurched Next Door* 이혜림 역, *우리가 교회 안가는 이유* (서울: 예수전도단, 2007), 147.

52 황병배, "The Rainer Scale 을 통해서 본 한국 불신자 유형 조사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적 통찰", *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실천신학회, 2013), 60.

45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562-564.

46 김현진, *공동체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6.

47 한의신, *신약성서의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60.

음전도의 전략은 교회 안에 흥미 있는 소그룹으로 인도는 것이다.⁵³

마지막으로 비수용적인 부류가 있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나 반항적인 자들이다.⁵⁴ 이들은 적대적인 만큼 장기적이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부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단기간에 전도하기는 어렵다. 둘째,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초월자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셋째,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며, 그 시간 동안 사랑의 섬김으로 피전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으로 피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한국교회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문화교회로 잘 뿌리내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교회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 아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교회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또한 그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적 다문화 사회는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상황이 있기에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함도 밝혔다.

그리고 이미 다문화 사회로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호주연합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중심된 내용들도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질 수 있다면,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며 달려가야 할 목표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문화교회로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회의 건강함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그 건강함의 외적인 상징으로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제시하였다. 교회가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로만 전략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교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구원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회심을 경험하는 일들과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전도를 위한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효율적인 복음전도의 실천을 위하여 본질적 방안에서의 교회 내부의 준비, 그리고 방법적 차원에서의 외부적인 세상에 관한 준비를 제시하였다.

모쪼록 본 논문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 한국교회가 다문화교회로 정착하고 효율적으로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논고를 통하여 더 귀한 발전된 논고들이 이어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⁵³George G. Hunter III, *How to Reach Secular Peop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83-84.

⁵⁴ 히도균, “복음전도자들을 위한 피전도자들의 이해”, *전도바이블* 256-261을 참조하라

[참고문헌]

외국서적 및 외국논문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 Carroll, Seforosa. *Faith in a Hyphen: Cross-Cultural Theology*. Sydney: UTC Publications, 2004.
- Conde-Frazier, Elizabeth. Kang, S. Steve. and Parrett. Gary A. *A Many Colored Kingdom*. Grand Rapids, MI: Baker, 2004.
- Fowler, James. *Life Maps: Conversations on the Journey of faith*.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5.
- Guder, Darrell L. "Toward a Holistic Theology of Mission: World, Community, Neighbour." *선교와 신학* 15집, 2005.
- Hirschman, Charl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8, No 3, 2004.
- Hunter III, George G. *How to Reach Secular Peop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 Kymlicka, Will. & He, Baogang. ed., *Multiculturalism in Asia*. New York: Oxford, 2005.
- Mclaren, Peter. *Critical Pedagogy Culture: Oppositional Politics in Post Modern Era*. Routledge, 1995.
- Nelson, C. Ellis. *How Faith Matur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Robertson, Roland. and E. White, Kathleen.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1 London Routledge, 2003.
- Rue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 _____. "Encountering the 'other' in the World of Difference and Danger."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99. No.4. 2006, 10.
- Troper, Harold. "Multiculturalism." In Paul Robert Magocsci (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99.
- "Appendix I- The Uniting Church is a Multicultural Church." *The Report of General Assembly*. 1985.
- "Basis of Union." of Australia Uniting Church. 1992.
- "Conclusion. - Property Policy in a Multicultural Church." *The Report of General Assembly*. 1992.

국내서적

- 김도진 외. *다문화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4.
- 김범수 외. *다문화 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2007.
- 김현진. *공동체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양명득.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회*.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2009.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은준관. *실천적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장훈태. *선교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1.
- 하도균. *십자가* 경기: 예수전도단, 2015.
- _____. *전도바이블*. 경기: 예수전도단, 2014.
- 한의신. *신약성서의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번역서적

- Fowler, James. *Weaving the New Creation*. 박수봉 역.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6.
- S. Rainer, Tom. *The Unchurched Next Door*. 이해림 역. *우리가 교회 안가는 이유*. 서울: 예수전도단, 2007.
- Van Houten, Christiana. *The Alien in Israelite Law*.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 이니*.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국내논문

-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6집 3호, 2006.
- 박홍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대학과 선교* 6집. 서울: 대학과 선교학회, 2009.
- _____. "우리시대의 이주민을 위한 성경해석". *목회와 신학*, 통권 224호, 2008년 2월
- 설동욱.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정책 과제". 국회헌정 기념관 대강당에서 발표된 논문. 2012년 7월 23일
- 손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종교의 역할". *복음과선교*. 서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4.
- 육동일. "다문화 겨안아야 선진국된다". *opening 열린마당*. 중앙일보, 2008년 4월 25일자

- 이현정 “한국의 다문화 모델을 위한 공감론적 접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2014.
- 임희모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다중적 다문화선교사 리더십”. 제6차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자료집 2014.
- 정미경 “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의 이주민선교”. 복음과 선교 서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1.
- 천사무엘 “다문화 사회 기독교 학교의 성서교육”. 신학논단65집.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 최경순 “다문화 선교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과정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 황병배 “The Rainer Scale을 통해서 본 한국 불신자 유형 조사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적 통찰”. 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실천신학회, 2013.